

# 지방공기업 운영실태분석

## -2001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

백 승 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1970년도에 상수도 6개·지하철 1개 등 7개로 출발한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증가한 결과, 2001년말 현재 지방직영기업 174개·지방공사·공단 102개 등

총 276개의 지방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표1>참조).

1970년 7개 → 1980년 59개 → 1990년 186개 → 1999년 252개 → 2000년 267개 → 2001년 276개

<표 1> 지방공기업현황(2001년말 현재)

형태별	세부사업별	단 체 별
직영기업 (174)	상수도사업 (9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시흥, 군포, 화성, 파주, 이천, 구리, 포천군,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군, 오산, 여주군, 양평군,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고성군, 청주, 충주, 제천, 옥천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원군,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하수도사업 (2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구리, 과천, 춘천, 청주, 전주, 완주, 나주, 경주, 구미, 제주

형태별	세부사업별	단 체 별
	공영개발사업 (41)	인천, 울산,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의정부, 남양주, 평택, 시흥, 구리, 김포, 안성, 의왕, 오산,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충북도, 청주, 충주, 음성군, 충청도, 계룡, 천안, 보령, 아산, 연기군, 전주, 익산, 전남도, 목포, 순천, 여수, 광양,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지역개발기금 (1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방공사 공단(102)	의 료 원 (3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이천, 안성, 포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도시개발공사 (1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하철공사 (4)	서울도시철도, 서울, 인천, 대구
	기타공사 (6)	서울농수산물, 송파개발, 마포개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평택항만공사
	민관공동출자 (9)	인천터미널, 안성축산진흥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광주지방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김제개발공사, 장흥표고유통공사, 청도지역개발, 구미원예수출공사
	시설관리공단 (35)	서울,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부산, 부산환경, 대구, 대구환경, 인천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울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동해시, 속초시, 창원시, 거제시, 창원경륜(기타)
	주차관리공단(4)	인천, 춘천, 청주, 구미

이하에서는 2001년도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중심으로 각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 I. 經營成果

2001년도에 지방직영기업(174개)에서는 5,5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지방공사·공단(102개)에서는 7,92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지방공기업(276개) 전체적으로는 2,3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

타냈다(<표2>참조).

참고로 2000년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직영기업(175개)에서는 5,1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지방공사·공단(92개)에서는 8,17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지방공기업(267개) 전체적으로는 2,9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따라서 2001년도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지방직영기업(당기순이익: 5,176억원→5,594억원으로 증가)은 물론, 지방공사·공단(당기순손실: 8,171억원→7,921억원으로

# 실태분석

<표 2> 요약손익계산서(2001년도)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수익 (D)	영업외비용 (E)	경상이익 (F=C+D-E)	특별손익등 (G)	당기순이익 (H=F+G)	
계	73,526	75,138	△1,612	7,069	7,854	△2,397	70	△2,327	
직영 기업	소 계	41,365	36,225	5,140	3,991	3,269	5,862	△268	5,594
	상수도	22,665	19,837	2,828	1,625	1,978	2,475	△26	2,449
	하수도	3,846	3,812	34	818	816	36	△8	28
	공영개발	11,337	9,763	1,574	789	475	1,888	△242	1,646
	지역개발기금	3,517	2,813	704	759	-	1,463	8	1,471
지방 공사 · 공단	소 계	32,161	38,913	△6,752	3,078	4,585	△8,259	338	△7,921
	지하철	10,723	17,340	△6,617	1,398	3,634	△8,853	775	△8,078
	의료원	3,213	3,825	△612	415	217	△414	4	△410
	도시개발	13,348	12,729	619	861	521	959	△265	694
	시설관리	3,725	3,776	△51	214	149	14	△139	△125
	주차관리	107	102	5	3	-	8	-	8
	기타공사	658	784	△126	131	47	△42	△13	△55
	민관공동출자	387	357	30	56	17	69	△24	45

감소)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 上水道事業

상수도사업에서는 2001년도에 13,273명의 인력으로 2,4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당기순이익 1,965억원) 보다 24.6% 증가한 것이다.

영업수지비율<sup>1)</sup> 114.51%·경상수지비율<sup>2)</sup> 111.35%·총수지비율<sup>3)</sup> 111.21%이나, 요금

수준(485.1원/톤)이 총괄원가(546.6원/톤)에 미달함으로써 영업수지비율이 겨우 10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경상수지비율(111.35%)이 영업수지비율(114.51%)보다 작은데서 지급이자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1년도에는 급수지역의 총인구 44,155천명 중 40,507천명에게 384ℓ/일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91.7%의 급수보급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보다 0.3% 증가한 것이지만, 아직도 급수보급률이 40%에도 미

1) 영업수지비율은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영업비용-급수공사비)] ×100으로 산정하였음.

2) 경상수지비율은 [(영업수익+영업외수익)/(영업비용+영업외비용)] ×100으로 산정하였음.

3) 총수지비율은 (총수익/총비용)×100으로 산정하였음.

달하는 단체(양평군 29.8%·화성시 39.2%)가 있다. 배수량은 15,551천톤/일이나 조정량은 11,816천톤/일로 76.0%의 유수율을 나타냈지만, 유수율이 40%에도 미달하는 단체(태백시 36.1%)가 있다. 시설용량은 26,439천톤/일이나 배수량은 15,551천톤/일로 58.8%의 시설이용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도(59.9%)보다 오히려 1.1% 감소된 것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2. 下水道事業

22개 하수도공기업에서는 1,449명의 인력이 2,850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전년도에는 12,878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경영성과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업수지비율 100.90%·경상수지비율 100.79%·총수지비율 100.61%로 나타났으나, 사용료 수준(174.6원/톤)이 총괄원가(271.6원/톤)에 미달함으로써 영업수지비율이 겨우 100% 정도이다.

2001년도에는 하수지역의 총인구 19,707천명 중 17,477천명에게 하수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88.7%의 하수보급률을 나타냈으나, 아직도 하수보급률이 50%에 미달하는 단체(나주시 46.8%)가 있다. 하수발생량은 9,391천톤/일이나 하수처리량은 8,081천톤/일로 86.1%의 하수처리율을 나타냈지만, 하수처리율이 60%에도 미달하는 단체(대전광역시 57.5%)가 있다. 시설용량은 9,731천톤/일이나 하수처리량은 8,081천톤/

일로 83.0%의 시설이용율을 나타냈는데, 시설이용율이 저조한 단체(완주시 17.1%, 구리시 32.5%)에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公營開發事業 및 地域開發基金

41개 공영개발사업에서는 475명의 인력이 1,6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당기순이익 1,874억원)에 비하면 다소 감소된 것이다. 2001년도에 부천시·제천시·밀양시 등 3개 단체가 공영개발사업을 폐지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안성군·음성군·아산시·진주시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지역개발기금사업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15개 단체에서 42명의 인력으로 1,4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이는 전년도(당기순이익 1,466억원)와 동일한 경영성과이며, 15개 단체 모두 당기순이익을 나타냈다. 2001년도에는 41,25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내역은 공채발행 10,263억원·융자금회수 18,929억원(원금 15,370억원, 이자3,559억원)·예금이자 689억원·이월금수입 10,955억원·기타 416억원이다.

## 4. 地下鐵公社

4개 지하철공사에서 19,071명의 인력으로 8,0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는 전년도(당기순손실 8,189억원)보다 손실규모가 1.4% 감소한 것이나, 지하철요금의 현실화와 다양한 경영합리화방안의

## 실태분석

추진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업수지비율 61.8%·경상수지비율 57.7%·총수지비율 61.5%로, 영업손실·경상손실·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수지비율이 영업수지비율 보다 작은데서 지급이자의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地方公社醫療院

33개 지방공사의료원에서는 5,657명의 인력으로 4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는 전년도(당기순손실 281억원)보다 경영성고가 악화된 것이며, 33개 의료원 중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의료원은 7개에 불과하고, 특히 영업이익을 실현한 의료원은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업수지비율 84.01%·경상수지비율 89.79%·총수지비율 89.87%로, 영업손실·경상손실·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2001년도의 진료인원은 5,690천명(입원 2,346천명·외래 3,344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9%가 감소되었다.

### 6. 都市開發公社

2001년도에 11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100명의 인력으로 6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이는 전년도(당기순이익 352억원)에 비하면 97.2%가 증가된 것일 뿐 아니라, 11개 도시개발공사 모두 당기순이익을 나타냈다. 2001년도말 현재 택지개발 9,650천㎡(24개지구), 공단조성 6,074천㎡(5개지구), 공유수면매립 3,083천㎡(1개지구), 주택건설 32,041세대(58개지구), 주택

관리 103,698세대(154개지구), 기타 955천㎡(10개지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7. 施設 및 駐車管理公團

35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7,669명의 인력으로 1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발생시켰는데, 이는 전년도(당기순손실 45억원)보다 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영업수지비율이 98.66%이며, 특히 서울·종로·양천·강서·동작·강남·부산(환경)·대구·대구(환경)·대전·울산·부천·안양·용인·의정부·과주·김포·과천·동해·속초·창원·창원경륜공단 등에서는 영업활동에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4개단체 주차관리공단에서는 459명의 인력으로 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당기순이익 3억원)보다 경영성고가 개선된 것이다.

### 8. 民官共同出資事業 및 其他公社

9개 민관공동출자사업에서는 422명의 인력으로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이는 전년도(당기순이익 38억원)보다 경영성고가 다소 개선된 것이지만, 지방공사인 천터미널·광주지방공사·하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손실을 나타냈고, 특히 김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6개 기타공사에서는 754명의 인력으로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는 전년도(당기순손실 36억원)보다 손실규모가 증가한 것일 뿐 아니라, 서울농수산물공사

&lt;표 3&gt; 요약대차대조표(2001년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별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계	자본금	자 본 잉여금	이 익 잉여금	
계	550,883	109,777	441,106	211,355	53,680	157,675	339,528	209,413	160,288	△30,173	
직 영 기 업	소 계	333,020	72,816	260,204	112,134	26,958	85,176	220,886	37,405	148,626	34,855
	상 수 도	161,780	12,205	149,575	35,409	3,858	31,551	126,371	13,340	102,231	10,800
	하 수 도	74,667	6,986	67,681	11,220	771	10,449	63,447	23,108	41,649	△1,310
	공영개발	35,461	31,507	3,954	16,288	9,668	6,620	19,173	387	2,620	16,166
	지역개발기금	61,112	22,118	38,994	49,217	12,661	36,556	11,895	570	2,126	9,199
지 방 공 사 · 공 단	소 계	217,863	36,961	180,902	99,221	26,722	72,499	118,642	172,008	11,662	△65,028
	지 하 철	137,544	3,391	134,153	67,748	15,824	51,924	69,796	134,343	3,569	△68,116
	의 료 원	6,868	1,652	5,216	3,030	1,270	1,760	3,838	2,150	3,458	△1,770
	도시개발	53,998	27,996	26,002	23,095	8,039	15,056	30,903	22,563	3,683	4,657
	시설관리	7,338	1,218	6,120	2,947	885	2,062	4,391	4,394	191	△194
	주차관리	44	32	12	23	5	18	21	16	-	5
	기타공사	8,975	1,337	7,638	419	358	61	8,556	7,579	749	228
	민관공동출자	3,096	1,335	1,761	1,959	341	1,618	1,137	963	12	162

와 송파개발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 손실을 나타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II. 財政狀態

2001년말 현재 지방직영기업에서는 부채 112,134억원과 자기자본 220,886억원을 조달하여 유동자산 72,816억원과 고정자산 260,204억원에 투자하였고, 지방공사·공단에서는 부채 99,221억원과 자기자본 118,642억원을 조달하여 유동자산 36,961억

원과 고정자산 180,902억원에 투자하였다. 따라서 부채비율<sup>4)</sup>은 지방직영기업 50.77%·지방공사·공단 83.63%로, 지방공기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62.2%로 나타났다<표3>.

참고로 2000년도의 부채비율은 지방직영기업 56.75%·지방공사·공단 140.74%로, 지방공기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76.5%이었다. 따라서 2001년도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는 지방직영기업(부채비율: 56.75%→50.77%로 감소)은 물론, 지방공사·공단(부채비율: 140.74%→83.63%로 감소)의 경우에도 전년도

4) 부채비율은 (부채/자기자본)×100으로 산정하였음.

## 실태분석

에 비하여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고정장기적합률<sup>5)</sup>은 지하철공사(110.21%)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미만이었으며,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sup>6)</sup>은 지하철공사(21.43%)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이상으로 나타났다.

### 1. 지방직영기업

상수도사업은 유동비율 316.4%·부채비율 28.02%·고정장기적합률 94.71%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도 유동비율 905.8%·부채비율 17.68%·고정장기적합률 91.59%로 재무상태가 안정적<sup>7)</sup>이라고 볼 수 있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동비율 325.9%·부채비율 84.96%·고정장기적합률 15.33%로 재무상태가 안정적이나, 41개 공기업 중 16개 단체가 100%이상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고,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55.7%를 차지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분양대책이 요망된다. 지역개발기금사업은 유동비율 174.7%·부채비율 413.76%·고정장기적합률 80.48%로 나타났는데, 부채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공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지역개발기금사업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5) 고정장기적합률은 [고정자산/(자기자본+ 고정부채)] × 100으로 산정하였음.

6)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으로 산정하였음.

7) 특히 의정부시·과천시·원주시의 경우에는 부채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 2. 지방공사공단

지하철공사는 유동비율 21.4%·부채비율 97.07%·고정장기적합률 110.21%로 재무상태의 안정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의 부채비율은 전년도(333%)보다 대폭 개선된 것이지만,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유동비율 130.2%·부채비율 78.96%·고정장기적합률 93.16%로 재무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01년도의 부채비율은 전년도 보다 6.1% 증가된 것이고, 원주의료원·속초의료원·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다.

도시개발공사는 유동비율 348.3%·부채비율 74.73%·고정장기적합률 56.58%로 재무상태는 안정적이나, 총자산의 30.2%나 되는 재고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분양대책이 요구된다.

시설관리공단은 유동비율 137.6%·부채비율 67.10%·고정장기적합률 94.84%이고, 주차관리공단은 유동비율 637.9%·부채비율 109.63%·고정장기적합률 29.44%로 부채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민관공동출자사업은 유동비율 391.9%·부채비율 172.19%·고정장기적합률 63.91%로 부채비율이 높으며, 기타공사는 유동비율 373.0%·부채비율 4.90%·고정장기적합률 88.64%로 타인자본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